

해남군, 지역 특성 맞는 식량산업기반 조성 박차

농림축산식품부, 5개년 식량산업종합계획 최종 승인 쌀 작물 생산·가공·유통 계획 수립 공동 브랜드 육성

해남군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식량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5개년 식량산업종합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식량산업종합계획(2019~2023년)은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쌀 식량 작물의 생산·가공·유통계획 수립·적정투자 계획·농가 조직화·기존 시설 가동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마련했다. 해남군은 농협 마곡종합처리장(RPC), 민간 RPC, 들녘 경영체, 생산·유통·가공

법인 및 단체와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역 식량산업 발전전략과 미국 생산·유통 체계화, 발작물 생산, 시설투자·운영, 협의체 구성·역할 분담 계획 등도 반영했다.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추진 가능 여부·시행 시기 등을 논의해 실현 가능성이 큰 투자계획을 반영했다. 해남군 식량산업종합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위원으로부터 지역의 농업적 환

경을 적정하게 고려했고 사업목표·추진전략·지자체 사업도 등도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타 작물 전환을 위한 농가 조직 강화, 공동브랜드 육성과 차별화 전략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계획에 충분히 보완·반영하고, 식량산업의 체계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농관원 진도사무소 20여년만에 부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진도사무소가 20여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는 지난 12일 진도를 청사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농관원 진도사무소는 지난 1998년 농관원 해남·진도사무소로 통합돼 업무를 진행해오다 21년 만에 부활했다. 통폐합 이후 지역 농업인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재직 시 진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관원의 부활을 농업인들이 건의해 관련 기관 협의 후 재탄생했다. 김성담 농관원 진도사무소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개소된 만큼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편익향상 및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해남 산이면 대진마을 밭에서 고구마 순 심기가 한창이다. 현재 심고 있는 고구마는 밤고구마와 풀고구마로 오는 7월부터 수확된다. <해남군 제공>

해남 지역 특산물 고구마 심기 한창

풀고구마·호박고구마 등 한달 앞당겨

해남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의 순을 심는 작업이 시작했다. 고구마 순은 보통 5월 중순에 심는데 이번에 이식하는 고구마는 여름 휴가철 판매를 겨냥한 조기 출하용으로 타 품종보다 한 달가량 일찍 심는다.

풀 고구마로 불리는 해남 1호 밤 고구마인 풍원미 품종으로 오는 7월 중하순부터 수확한다. 9월께 수확하는 호박고구마는 다음 달 말까지 심는다. 지역 최대 고구마 산지인 해남은 1000여 농가에서 총 1647ha의 고구마밭을 경작해

연간 43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해남 고구마는 해양성 기후와 게르마늄(Ge) 함량이 높은 붉은 황토밭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이 많다. 200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농산물 제42호로 등록됐으며, 고구마말랭이 등 가공식품으로 개발돼 웰빙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갯벌 등 연안해역 사고예방 완도해경, 위험지역 전체조사

완도해경경찰서는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험지역 대상 전체조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위험지역 조사 대상지는 관내 방파제, 갯벌, 항포구, 선착장과 연안 안전시설물 등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다.

해경과 전남도, 지자체 등 6개 기관과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6일간 조사를 완료했다. 완도·해남·강진·장흥군 등 23곳의 위험장소를 평가·분석, 위험구역 지정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카드 작성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 훼손·파손·오염상태 파악, 위험구역 적재적소 설치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홍보 여부 등도 조사했다. 광충실 완도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관리시설물 추가설치와 보수작업도 하기로 했다"며 "성숙한 연안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완료

진도군이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토양개량제 방치, 적기 미살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앞서 토양개량제 방치 예방과 적기 살포를 위해 군청 농업지원과 공무원들을 비롯해 농협, 마을이장, 작목반장 등으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각 마을별 영농회와 군내면 농민회를 공동살포 대행자로 선정해 군내면과 고군면에 공급된 토양개량제 2185t 중 1475t을 지난 3월부터 공동살포했다. (사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에게는 포

대(20kg)당 8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개별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살포에서 제외됐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을 개량, 지력을 유지하고 보전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토양개량제의 지역 증진효과는 3년간 지속돼 읍·면별 3년 1주기로 공급되며 올해는 군내면과 고군면이 공급대상 지역이다. 한편 토양개량제 공급은 2020년 임회·지산·조도면, 2021년 진도읍·의신면 순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군, 용암리 비석거리 10억원 투입

'웃음 새기는 안전한 비석거리'로 만든다

완도군이 낙후한 용암리 비석거리를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웃음을 새기는 안전한 비석거리'로 조성한다. 비석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고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 까지이다. 용암리 비석거리는 근대 문화와 역사가 존재하는 완도 옛 중앙로다.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 할 수 있는 고지대에 위치한 마을이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

해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재생사업으로 지역민 안전 도모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사업 대상지 현황 조사와 기본·실시 설계에 1억 7000만원(국비 70%·군비 30%)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공간 조성으로 좁고 비탈진 골목길을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안심 펜스·안심 벨을 설치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도모한다. 팡나무 솜터 정비와 사랑방 리모델링으

로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커뮤니티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 노후 담장 주변에 수목 식재와 색채 디자인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하트선으로 불리는 주도와 다도해를 조망하는 포토존도 설치한다. 마을 진입부 빈 외벽에 야간 조명을 갖춘 마을 안내 지도를 제작·설치해 비석거리의 유래와 마을 이야기를 전달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